

| 신년사 |

국가사회의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합쳐 대화해야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노사정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는 위기입니다.

첫째, 세계 역사상 최저의 '저출산'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남녀가 서로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습니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 출산가정에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엄마 맞춤 늘봄 보육과 교육을 시급히 강화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공기업이 먼저 다출산엄마 우선 승진·배치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와 소상공인, 청년·여성·하청·비정규 취약계층의 권익을 노사정이 함께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셋째,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을 이제는 대화 위주의 노동운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과 머리를 맞대고 국가사회의 위기극복에 적극 헌신하겠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eslc**



김문수 위원장, “노사정이 힘을 합쳐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

4년 만에 한자리 노사정 신년회,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위해 대화·협력 한목소리



▲ 건배를 나누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왼쪽부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4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정치권, 학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인사말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위원장은 “청춘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가정이 없는 사회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합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24일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



▲ 2024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 12월엔 노사정 대표자 오찬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노사정 부대표자 간 정례회의를 지속하며,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본위원회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slc](#)